

지역산업의 창업, 고용촉진 제도 및 정책조사

- 김정홍 연구위원(지역발전연구센터)

□ 해외출장 개요

- 출장자 : 김정홍 연구위원
- 출장기간 : 2011년 6월 8일 ~ 6월 16일 (8박 9일)
- 출장지역 및 면담자
 - 출장지역 : 미국(앤아버, 랜싱, 디트로이트)
 - 방문기관 및 면담자
 - SPARK : Donna Shirilla(Director)
 - SPARK : Shamar R. Herron(Business Development Manager)
 - MEDC : Frank Ferro(Business Development and Attraction Manager)
 - City of East Lansing : Jeffrey Smith(Project Manager - New Economy Initiatives)
 - TechTown : Faris Alami(Entrepreneurial Partner Champion)

○ 출장목적

- 자체과제 “가젤지역의 고용창출 결정요인 분석” 관련 지역산업의 창업 및 고용촉진 제도 및 정책 조사
- 최근 1년간 미국 내 고용창출 1위 지역(한국경제신문 2011년 5월 3일자)인 미시간주의 지역정책을 살펴보고, 대표적인 클러스터 육성 수단인 SPARK와 SmartZone의 운영 현황 및 특징, 성공요인 등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수집

○ 출장 일정

일자	주요 업무
6월 8일(수)	인천공항 출발 → 디트로이트 공항 도착, 디트로이트 → 앤아버 이동
6월 9일(목)	- 지역 기업지원기관인 SPARK의 전반적 운영상황에 관한 Donna Shirilla(Director) 면담 - SPARK 내 기업유치 및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Shamar R. Herron(Business Development Manager) 면담 및 SPARK 시설 견학
6월 10일(금)	- 앤아버 → 랜싱 이동 - 미시간경제개발공사(MEDC) 기업유치 및 육성 책임자인 Frank Ferro 면담
6월 11일(토) 6월 12일(일)	자료정리
6월 13일(월)	- Lansing시의 SmartZone 운영과 관련하여 Jeffrey Smith 면담 및 East Lansing Technology Innovation Center(SmartZone) 시설 견학 - 랜싱 → 디트로이트 이동
6월 14일(화)	- 디트로이트 웨인주립대의 연구단지이며 스마트존인 TechTown 방문, Faris Alami 면담 및 시설 견학
6월 15일(수)	디트로이트 출발
6월 16일(목)	인천 도착

1. SPARK 방문 결과

- 앤아버지역에 민관합작으로 설립된 기업지원기관인 SPARK는 지역 내 기업, 특히 혁신지향적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심 지원기관이 되고 있음.
 - 2005년에 설립된 동 기관은 우리나라의 테크노파크(TP)와 유사하게 창업 기업 지원, 종잣돈(seed money) 지원, 장비제공, 인큐베이터 시설, 기업 유치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.
 - 또한 SPARK에서는 기업입지, 사무실 공간 및 실험실 확보, 지역소재 대학과의 연계뿐 아니라, 기업성장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조언함.
 - 이에 따라 앤아버지역은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, SPARK는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, 자원, 교육기회 등을 제공함.
- SPARK는 앤아버에 소재하고 있지만, 미시간주의 기업지원기관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역내 개방형 경제발전(Open Source Economic Development) 을 추구하고 있으며, 부속 기관도 미시간주 전체에 산재하고 있음.
 - 예컨대 인큐베이터인 SPARK East는 Ypsilanti에, 미시간생명공학혁신센터¹⁾는 57,000ft²(약 1,600평) 규모로 Plymouth에 입지함.
- SPARK의 'Business Accelerator/Entrepreneur'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자금, 고객, 자원 등을 집중시킴으로써 창업기업으로 하여금 창업에서 사업화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함.
 - 여기서는 창업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1대1 코치가 이루어지는데, 경험이 풍부한 산학 전문가가 창업기업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의 선정, 계획수립, 경영활동 실무 등을 지원함.

1) Michigan Life Science and Innovation Center (MLSIC)

- 또한 동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에 자본, 경영인재, 서비스 공급기업, 핵심부품 공급기업, 주요 고객 등을 소개해 줌.

○ SPARK의 연간 총예산은 약 1,082만 달러 정도임.

- 그 중 SPARK의 운영예산이 절반 정도인 520만 달러, 기금 368만 달러, 사업 및 센터 지원비 193만 달러 등임.

○ SPARK의 설립으로 지역내 기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음.

- SPARK가 지원하는 앤아버지역에서만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216개 창업기업을 포함하여 약 1천개 기업을 지원하여 9,049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였고, 117개 입주기업을 창업보육하고 있음

2. MEDC 방문 결과

□ 고용기금 설립 및 고용보조금 제공

○ 미시간주는 미시간개발공사를 통해 약 20억 달러 규모의 '21세기 고용기금'(21st Century Jobs Fund)을 설립했음.

- 동 기금의 설립 목적은 미시간주의 사업화 및 고용창출 잠재력 향상, 보조금보다는 투자촉진 강화, 외부 자금원과의 매칭펀드를 통한 사업 공동추진 등임.

- 이 기금에는 SPARK가 중심이 되어 집행되는 '미시간 종자 자본펀드'나 '투자기금' 등 고용창출과 관련된 여러 형태의 기금을 망라한 미시간주 전체를 지원하는 종합기금임.

○ 그 중 '우수 에너지센터 사업화 지원사업'²⁾은 대학과 국립연구소로 하여

금 에너지 관련 기업이 갖고 있는 지식재산을 공개하도록 지원하여 미시간주의 고용창출 및 에너지산업 공급체인을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을 둠.

- 동 사업의 세부 목표는 에너지산업의 다양화 촉진, 주의 예산투입에 의한 국비 매칭자금 확보, 대체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및 공급체인상에 있는 범세계적 관련 기업의 유치 등임.
- 또한 선택 미시간기금(Choose Michigan Fund)은 신산업에서의 대기업을 미시간주로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임.
- 그외에도 후술하는 공공 기업업지원기관인 SPARK 내의 Michigan Works!라는 연방지원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 2009년 현재 종업원당 1만 달러의 고용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음.
- 동 프로그램은 SPARK나 기업가 지원기관인 Eastside Innovation Campus 등과 협력하여 수행됨.

□ 창업지원금

- 미시간경제개발공사(MEDC)은 웨인(Wayne)카운티개발공사, SPARK 및 민간자금 등과 함께, 미시간생명공학혁신센터(MLSIC)를 설립함.
- 웨인카운티는 창업지원을 위해 MLSIC에 25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였으며, 창업 관련 실무를 SPARK가 대행함.

□ 창업전 펀드 및 소규모 대출 프로그램

- MECD는 미시간에서 창업하기 위한 준비 단계 창업가를 위해 '미시간 창업전 종자펀드'(Michigan Pre-Seed Capital Fund)와 '미시간 소규모 대출

2) Centers of Energy Excellence

프로그램'(Michigan Microloan Program)을 운영하고 있음.

- 2007년에 설립된 미시간 창업 전 펀드는 기업설립 초기 단계에서 사업화에 근접한 첨단 창업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발전을 촉진시킴.
 - 이 펀드는 SmartZones의 컨소시엄에 의해 지원받으며, 기업설립 초기단계에서는 기업이 개인에 대한 투자까지 이루어짐.
 - 이 펀드가 타깃으로 하는 주 소재 기업들은 첨단 자동차, 신소재, 대체에너지, 보안장비, 생명과학 등 최신 기술을 창출시키는 기업인데, 투자파트너의 매칭 정도에 따라 기업당 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정도가 투자되며, 이를 통해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음.
- 창업기업을 위한 소규모 대출프로그램은 MEDC, 와쉬테나우카운티, 앤아버시 등이 함께 약 150만 달러 규모로 조성한 것임.
- 투자엔젤 네트워크 및 25개 벤처캐피털도 구성되어 있는데, 2008년 현재 가용자금이 약 5억 달러에 달함.

□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

- 2007년 현재 미시간주는 주 내에 있는 기업의 약 70% 정도가 세금감면 대상이고, 기업의 소득세율도 4.95%로 비교적 낮은 편임.
 - 특히 기업의 총수입(gross receipts)이 35만 달러 이내인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, 창업 초기의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음.
- 또한 미시간주는 창업기업 공제, R&D투자 공제, 생산시설 투자 세액공제, 고용창출에 따른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음.

3. East Lansing과 TechTown 등 SmartZone 방문 결과

- 미시간주 SmartZone은 대학, 연구기관, 기업체 및 주정부 등이 참여하여 지역 내 기술기반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미시간주 경제개발공사(MEDC)가 지정하고 있음.
- 이러한 스마트존은 신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, 스마트존 내에서 대학의 연구개발, 교육·직업훈련 등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.
 - 이를 통해 산학관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여 창업,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.
- 스마트존에서는 신기술 발굴, 개발된 기술의 평가, 사업계획 작성, 창업가 육성, 벤처캐피탈의 조달 및 알선, 시장분석,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혁신 연구개발(SBIR), 중소기업 기술이전(SBTR) 프로그램 등을 위한 보조금 신청, 제품개발 및 기술지도, 창업보육 공간제공, 산업계와 대학 간 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함.
 - 특히 스마트존 내에 입지한 인큐베이팅 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얻고 있음.
- 스마트존은 2001년 4월 처음으로 10개 지역이 지정된 이후, 2010년 현재 16개 지역으로 증가하였음.
- 스마트존에는 4개의 연구기관을 포함한 15개 주립·시립대학이 입지해 있고, 이 기관들은 지역의 연구개발기업의 거점이 되고 있음.
- 각 스마트존은 특정 첨단기술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, 2008년 현재 스마트존에는 768개 기업이 입지해 있으며, 8,30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었음.
 - 또한 구역 외의 938개 기업은 스마트존의 지원을 받고 있고, 전체적으로

11억 1,000만 달러의 투자가 유치되었으며,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16개의 인큐베이터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.

○ 스마트존은 고용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.

- 2002년 대형 제약회사인 Pfizer가 미시간주 남서부 도시 Kalamazoo에 거점을 두고 있던 Pharmacia를 매수한 후, 800명의 인원감축을 단행하였음.

- 그러나, 칼라마주 스마트존에서는 Pharmacia 연구인력에 대해 지역에 남아 창업하기 위한 공간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, 생명과학 분야의 창업이 촉진되었음.